

치 사

전국의 불자를 대표하고 신행문화를 주도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이순(耳順)이라는 인생에서 아주 의미있는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축하의 마음과 함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여러분, 그리고 현재 중앙신도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진력을 다하시는 이기흥 회장님과 전국의 신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중앙신도회는 과거의 분단과 군사정권 등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1955년 종단신도조직을 구성하여 오늘날까지 종단을 외호하고 불자들을 하나로 만드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많은 사회갈등과 양극화 속에서도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 통합을 통해 역사를 계승하였으며, 전법회관 건립에 뜻을 모았고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불자들이 화합과 소통으로 조직화 될 수 있도록 단단한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전국 24개 교구신도회 재정비를 완료한 역사적인 성과와 함께 61주년 기념식을 봉행하게 된 것은 종단적으로도 큰 의미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교구신도회를 중심으로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신행문화의 확산을 통해 내 삶을 밝히고 사회를 더욱 향기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신도회는 한국불교의 주체이자 신도 여러분들은 한국불교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안으로는 종단 소속 모든 신도들이 한국불교의 큰 주춧돌로 성장할 수 있게 보다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왕성한 포교활동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위상 정립과 이에 따르는 역할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성찰과 미래의 희망이 함께하는 중앙신도회 창립 6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소중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신행문화를 실천하여, 우리 사회가 여러분의 공덕이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1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총재